

# “5·18 특별법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38년만에 공식 인정할 7일, 5월 단체 등은 “특조위 조사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강제조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대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조위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는 군의 주장을 반박한 점, 62민족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의 의미가 있다. 안타까운 점은 어떤 헬기에서 누가 쏘았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80년 5월 24일 헬기사격 정황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는 강제 조사가 없는 특조위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한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하고 있는 만큼 진실을 왜곡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마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조사 권한의 강제성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5월 단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과 조사권도 없고, 고발과 수사 요청 권한조차 없다면 국방부 특조위의 전철을 밟고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조위 발표는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한 채 헬기사격 부대나 조종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질rup발이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기해자들이 거짓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접근을 방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의 강제력을 통해 허위진술에 따른 처벌 등이 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수사 회피와 거짓 증언을 막고 5·18 진실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도록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국

## 5월 단체, 광주 지역 학계·법조계 반응

### 특별법 제정·수사권 지닌 조사위 시급

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줬다고 본다.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송한용 전남대 5·18연구소장은 “실제 명령 체계, 헬기 운용 실태, 사격이 이뤄진 정황까지 모든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되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세심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소송을 주도 중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다소 미치지 못해 아쉽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김지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강제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는 “62민족의 자료를 분석했지만, 왜곡이 심했다. 문서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증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제 조사와 수사권을 가진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중한 사람은 고발하되,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도청 앞 집단발포의

최남규 기자



졸업시즌 앞두고 꽃시장 인기 졸업 시즌인 7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꽃백화점 2층을 찾은 시민들이 꽃과 꽃대발을 구매하고 있다.

## 광주·전남 내일부터 평년기온 회복

광주·전남 지역은 7일 낮부터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영상권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오는 9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함평 월야 영하 18.3도, 화순 북면 영하 16도, 곡성 옥과 영하 15.2도, 장성 영하 15도, 나주 영하 14.9도, 담양 영하 14.2도, 광주

영하 10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 서 영상 3도로 전날보다 높았다. 8일과 9일의 낮 최고기온도 영상 3도에서 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8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영광·장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광양·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

사진 계획과 최초 발포 상황 발표 명령자 등 핵심 의혹들이 규명되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군이 왜곡·은폐·조작해온 5·18 관련 기록물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의갑 5·18기록관장은 “전투기·헬기 조종사들이 특조위 조사에서 일체 임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다만 80위원회 등 5·18 이후 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은폐·조작해온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점은 큰 성과다. 역사 왜곡과 미해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만 5·18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조위에서 확보·분석한 자료들을 학계·언론계에 공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역사를 왜곡했는지 밝히는 것도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 부부 싸움 중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 40대 검거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3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방으로 달아나던 A(45)씨를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조수사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아내 B(38)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파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 편의점 여주인 상대 강도짓 20대 구속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강도상해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익산시 신동 한 길가에서 편의점 주인 A(30)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12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맞아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3개월 가량 일했던 편의점 주인이 돈을 찾아가는 시간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씨를 구속했다.

## 닭가공공장서 60대 근로자 기계 끼여 사망

대구의 한 생닭 가공공장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팔이 끼여 숨졌다. 7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서구 이현동 한 생닭 가공공장서 A(67)씨가 탕처리기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파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스토킹하던 女 차량 방화 용의자 숨진 채 발견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꾸 따라다닌다”며 경찰에 신고,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평택의 한 산책로 다리 밑을 지나던 시민이 “한 남성이 목을 매 숨져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은 전날 오후 3시12분께 평택 비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중학교 동창 A(49·여)씨가 타고 있던 경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B(50)씨였다.

B씨는 전날 범행 현장에 차를 타고 왔다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발견 당시 B씨는 범행 당시와 같은 신발과 바지 차림이었다. 숨진 B씨 옷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죄송하다. 저승에 가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4일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자신을 따라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같은달 15일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

경찰도 B씨가 A씨를 자꾸 쫓아다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수락, A씨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관찰하고 있었다.

B씨가 불을 지른 차량 안에 있었던 A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중태다.

